# 李대통령, 내일 불교계에 '유감 표명' 가능성

## 국무회의 또는 대통령과 대화서…어 청장 퇴진은 빠질 듯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의 종교 편향 반발과 관련, 오는 9일께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불교계의 반발 기류가 수그러들기를 기대하며 그 내용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불교계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시점으로는 9일 국무회의 석상이나 같은 날 생중계로 진행되는 '대통령과의 대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각각 여론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종교적 편향 문제에 유감을 표명한 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보다 진솔하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감을 밝힌 뒤 불교계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반응을 본 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불교계의 반발 기류가 수그러들기를 한목소리로 기대했다.

특히, 당내에서도 퇴진이 거론됐던 어청수 경찰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측 입장을 수긍하는 쪽으로 돌아선 분위기가 역력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불교계의 요구를 모르는 것이 아니며 요구에 대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불교계 요구 중에서 무리한 부분은 이해가 잘 가시도록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조만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어 청장 자진사퇴를 주장했던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편할 수 있다는 취지였을 뿐이고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희태 대표 측 역시 "꼭 사퇴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당이 청와대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고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과한다 해도 불교계 내부가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대통령의 단순한 유감 표명으로는 사태가 진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진솔한 사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중진 의원은 "위기일수록 당청간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청와대의 밀어붙이기만 보이는 실정"이라며 "이런 식으로라면 당장은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더 큰 저항에 직면했을 때 당에서 팔짱끼고 쳐다만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어청수 청장 사퇴 놓고 당-청 '엇박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또 다시 엇박자를 내며 불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는 청와대의 소통부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 사이에서조차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당청간 '삐걱거림'은 쉬이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청간 갈등의 대표적 쟁점은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문제.

당 지도부는 이미 불교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어 청장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보다 못한 주성영, 나경원 등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어 청장 사퇴를 공개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어 청장은 잘못한 게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어 청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기류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7일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특정인 인사 문제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당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 당내 분란 조짐까지 일고 있다. 또한 5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공감정책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불평이 대단하다.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이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입김이 정부부처까지 미쳤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책이 대부분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입장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에게 정책 공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일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자녀 결혼식에 주례를 보기 위해 참석했다. /연합뉴스

## 盧 전대통령 결혼식 주례…친노 총출동

친노 인사들이 6일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모처럼 한자리에 총집결했다.

6일 오후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골프장에서 핵심측근인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자녀 간에 치러진 결혼식에서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결혼식에서 퇴임 후 첫 주례를 맡았다.

친노 그룹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이처럼 대규모로 회합한 것은 처음으로, 최근 친노 세력이 각개약진식으로 활동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노 전 대통령은 주례사에서 "나무그늘 밑에 '주례 팬'도 오셨다"며 밝은 표정을 보인 뒤 "오늘 주례를 하게 된 이유는 혼주들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강금원씨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생각이 같아 큰 힘을 보탰고 정치적 성취의 큰 버팀목이 돼 줬으나, 제 불찰 때문에 제가 겪을 고초를 대신 겪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10년'을 저와 함께 동업을 한 사람"이라며 하객들의 웃음을 유도한 뒤 "동지로 함께 정치를 했고 정권을 잡아 국정운영을 했으며 지금도 그 인연으로 헤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됐다"며 "이정도 되면 주례를 보는 것이 큰 기쁨이지 않겠느냐. 매우 기쁘고 보람된다"고 말했다.

이날 결혼식은 가족·친지를 합해 총 500명 안팎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 부부 도착과 함께 시작됐고, 노 전 대통령은 시종 밝은 표정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결혼식장에 참석한 친노 인사들과 환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 민주 "대통령과의 대화, 반론권 달라"

### 각 방송사에 요청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일 저녁 100분짜리 '추석맞이 토크쇼'를 통해 '대통령과의 대화'를 갖는 데 대해 각 방송사에 반론권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소수야당인 민주당에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야당의 반론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황금같은 100분 동안 전 정권 탓하기, 촛불민심 왜곡하기, 경제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 국민을 호도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전파낭비이자 시청자의 채널선택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서민·중산층과의 대화' 또는 기자회견 등의 형태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방송사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특별기고 -제 7회 광주비엔날레를 보고

# 광주, 다시 뛰다

정 준 모

1995년 똘똘 뭉친 시민들의 힘으로 일거에 아시아의 변방에서 문화의 발신지로 자리매김한 광주비엔날레의 신화는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앞 다투어 비엔날레를 창설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광주비엔날레가 지금처럼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산고를 겪어야 했지만 최초로 외국인 예술감독을 선임하는 실험과 전문가를 상임부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시도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주제없는 주제' 매우 적절

'연례보고서'라는 주제 없는 주제를 통해 2007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세계 곳곳에서 열린 전시를 모은 '길 위에서'를 비롯 5명의 큐레이터가 독자적으로 구성한 '제안' 그리고 이런 흐름을 보완하고 연결시켜 다양한 현대미술의 담론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끌어 가려는 '끼워 넣기'를 통해 7회 광주비엔날레를 구성했다. 하지만 눈치 빠른 관객이라면 주제를 언어화 하지 않음으로써 관객들에게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전시장을 다 돌아본 뒤 스스로 오늘 본 것을 종합하는 한 마디, 즉 '주제를 관객 스스로가 생각하고 떠올려보게 하는' 고도의 소통하기 위한 의중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빙긋 웃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실 주제를 두고 그 주제에 걸 맞는 작품을 모으는 '비엔날레의 형식'을 통해 오늘날의 다종다기한 현대미술들을 담아낸다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것이다. 분화되고 파편화한 현대사회, 집단보다는 개인, 거시사보다는 미시사, 일상사가 주류인 시대에 하나의 주제에 현대의 다양한 삶의 형식과 내용을 한 그릇에 넣고 비빈다는 것은 폭력에 가까운 일이다.

현대미술의 특징인 각각의 미세한 다름과 차이의 간극이 드러내는 미묘한 소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주제 없는 주제'는 매우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엔날레의 형식에 대한 실험도 매우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즐겁고 행복했던 사건은 대인시장의 '복덕방 프로젝트'였다. 복덕방이라는 타이틀보다도 광주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프로젝트는 오히려 조금 더 규모가 컸으면 어떠했을 까 할 만큼 신선했다. 그간의 광주비엔날레가 사돈 될 집안 어른들 상견례 하듯 보여주고 싶은 겉모습 만 보여주었다면, 사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대인시장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시장에서 물건들과 함께 공존하는 고상한 탈을 벗은 현대미술은 시장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고 신기함이었다. 자신들의 일상이 삶이 예술이 된다는 사건에 즐겁게 동참하는, 같이 보고 함께 거들고 때로는 작품 앞에서 수군거리는 모습에서 현대미술에 대해 경계를 푸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 일상 다룬 '복덕방…' 참신

사실 그간 우리의, 광주시민들의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큰 것이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뜸도 들기 전에 가마솥의 뚜껑을 여는 실수를 반복해야 했다. 지금까지 광주는 외국의 유명비엔날레와 똑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번 비엔날레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얻은 그간의 시행착오를 밑천으로 우리 만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고 독창적인 비엔날레를 향해 다시 닻을 올려 큰 바다를 향해 '다시 뛰려는' 광주비엔날레의 의지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평론가·고양문화재단 전시감독〉